

News

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동산PF 위험 수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달라"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 등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관 역량 다 끌어모아... 고정형 전세대출 금리 더 내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변동금리 일변도 전세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치솟는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보장해준다는 취지

부동산도 폭탄 터지나... 미분양 한달새 1만가구 폭증

국민일보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20% 가까이 늘어 7만 가구에 육박

20년 장기 평균선인 6만2000가구를 훌쩍 넘은 것

하나·우리은행, 올해 희망퇴직으로 628명 집 싼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작년보다 41% 줄어든 279명... "임금피크 대상자 감소"

우리은행 349명으로 16% 감소... "신청자 줄어든 영향"

원·달러 환율 1100원대 눈앞...생보사 달러보험 '동상이몽'

전자신문

원·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보험을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음

기존 판매회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고 있고, 고환율로 출시를 미뤘던 한 생보사는 본격 출시 검토

보험사 K-ICS 성적표, 매달 금감원 보고한다

헤럴드경제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

금융감독원이 제도 연착륙을 위해 매달 K-ICS 비율을 보고받기로 함

30만계좌 줄고 판매액 9조 증발... 적립식펀드 왜 이러나

파이낸셜뉴스

증시 부진 여파 주식형에 직격탄, 금리 오르며 채권형도 큰 폭 감소

수익률 부진에 대체재 속속 등장, 투자자 눈길 끄는데 '역부족'

이복현 금감위원장 "부동산 PF 많은 증권사 성과급·배당 신중해야"

조선비즈

임원회의서 부동산 PF 익스포저 높은 증권사 배당·성과급 자제 주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